

강한 의지로 이겨낸 암 투병, 후원의 꽃 한 송이를 심다



곽진 (주)현보 회장은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를 인수해 36년 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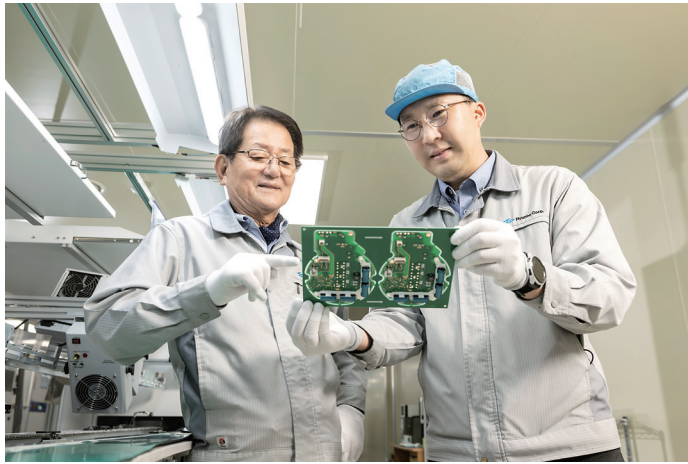
“기업 운영이든 개인적인 건강관리든 닥쳐오는 난관은 다만 극복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단련의 과정이 오늘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강하게 말하는 곽진 회장은 암 투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으로 의지를 폈다. 곽진 회장은 1987년 (주)현보를 설립하고 차량용 모터부품, 전자부품, 전장부품 등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며 36년 만에 중국과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강한 의지로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다

“평소 건강을 확신하고 있어서 암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봄의 건강검진에서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막막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순간 지난날의 내 삶이 파노라마로 스쳐가며 이 또한 하나의 시험이구나 싶었지요. 그 중에서 지금 나를 넘보고 있는 암을 다스리는 힘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현대 정신’이었다. 그는 고려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청운의 포부를 안고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에 입사했다. 기획실과 영업팀에 근무하며 남다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업무 태도로 주목 받았다. 그렇게 8년간을 ‘현대맨’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창조적인 도전, 강인한 추진력, 긍정적인 사고 등 ‘현대 정신’을 체질화했다. 곽진 회장은 “서울아산병원이 지향하는 정신과 상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치료 과정에서 더 분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거기에도 해방 후 어려운 시기에 부산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각종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온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다. 생전의 어머니와 다짐했던 ‘바쁜 꿀벌은 고독을 모른다’는 좌우명을 한시도 저버리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박진 회장.

지 않고 일관되게 살아온 성실함도 그의 자신감이 됐다.


이런 그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주)현보를 키워내는 큰 힘이 됐다.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현보전자를 인수해 정확히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3년차에는 서울에 사옥을 세우고 공장도 증설했다. 성공적인 출발과 함께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다. 열정과 추진력으로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고 2004년 중국 공장을, 2015년 멕시코 공장을 설립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순조롭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식도암이라는 새로운 난관이 닥쳐온 것이다.

암 극복의 승전보를 후원의 꽃으로 피워내다

“쉽사리 투항하는 것은 제 삶의 방식이 아니지요. 물론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들의 투철한 의료 정신과 의료 역량이 먼저이긴 하지만, 나의 의지를 전적으로 믿어준 가족과 의료진들의 신뢰도 참으로 고마운 힘이었어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수술은 하지 않고 항암약과 방사선 치료, 표적치료 이렇게 세 가지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그는 가족들 앞에서 결연히 선언했다. “이제 나는 아산고지에서 55일간의 항암전투를 전개하려 한다. 그 동안 해온 일상의 활동은 가능한 한 유지하며 의료진들의 처방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필코 승전고를 울리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암 투병은 철두철미했다. 술, 담배와 무리한 약속은 몸 관리를 위해 절대 피했지만, 미리 약속된 모임과 일정은 변함없이 소화했다. 주위 동료들이나 회사 관계자들도 그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의지는 강했다. 55일 뒤, 그는 결심한 대로 훌륭히 승리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이 더욱 발전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을 결심했다.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 드나들 때마다 후원자 영상을 유심히 보며 언젠가 후원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곤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며 ‘그래, 바로 이 때다’하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없이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암을 물리치는 전투를 이겨내며, 아산동산에 후원의 꽃 한송이를 심게 되었지요.” 박진 회장은 “거듭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회와 형편이 닿는 대로 서울아산병원의 발전을 위한 후원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 편집부



(주)현보 멕시코 현지공장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박진 회장(가운데).